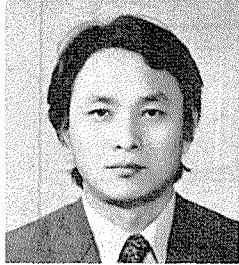


逆오일쇼크와 対応戰略



黃 義 珏

〈高麗大 經濟學科 教授〉

I. 序言 - 油價下落

世界原油價格이 下落하고 있다. 1960年 9月 베네수엘라(Venezuela)의 先導로 石油輸出 國機構(OPEC)가 結成된 이래 특히 1973年 10月 中東戰爭과 1979年 이란의 回教革命이 各 契機가 된 1次와 2次的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무려 23倍나 上昇하였던 石油價格이 下落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부닥쳤다는 것은 經濟法則의 自然的 귀결이라고 보겠다.

최근 原油價格의 下落의 主要原因은 첫째,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과 둘째, 石油카르텔의 不安定性 要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油價가 下落하는 主要因은 최근 들어 石油가 世界市場에서 超過供給狀態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石油의 需要가 供給에 未達하게 된 原因도 따지고 보면 過去 油價上昇이 초래한 結果로서 특히 1979年 以來의 世界經濟의 不況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物理學에서 原子의 構成要素인 粒子들이 자기 독립된 實體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作用을 통하여 끊임없는 운동과 활동을 하는 것처럼 石油와

世界經濟도 상호 밀접한 關係 속에서 變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第2次 石油波動이 물고 온 世界經濟의 沈滯, 특히 世界原油의 70%

〈表-2〉 世界的 石油生産

(單位: 千배럴/日)

	1979	1980	1981	1982	82年 構成比(%)	
					世界全体	自由世界
O P E C	30,782	27,126	23,262	19,202	34.7	47.4
사우디	9,526	9,955	9,846	6,527	11.8	16.1
이란	3,057	1,547	1,309	1,968	3.6	4.9
쿠웨이트	2,512	1,658	1,137	843	1.5	2.1
이라크	3,431	2,708	902	964	1.7	2.4
나이지리아	2,304	2,066	1,429	1,285	2.3	3.2
리비아	2,064	1,793	1,090	1,094	2.0	2.7
非OPEC自由世界	19,790	20,804	20,348	21,328	38.5	52.6
美國	10,208	10,283	9,592	9,639	17.4	23.8
멕시코	1,618	2,136	2,564	2,972	5.4	7.3
英國	1,598	1,651	1,795	2,058	3.7	5.1
自由世界合計	50,572	47,930	43,610	40,530	73.2	100.0
共產圈	14,264	14,590	14,716	14,809	26.8	
소련	11,800	12,143	12,230	12,298	22.2	
中共	2,123	2,119	2,033	2,042	3.7	
全世界合計	64,836	62,520	58,325	55,339	100.0	

〈資料〉 Retroleum Pres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Jan. 1983.

〈表-1〉 先進國 經濟成長率및 自由世界 石油 消費增減率

(單位: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¹⁾
消費量增減率(%)	7.8	- 3.4	- 2.4	6.2	3.1	2.8	1.4	- 4.5	- 5.1	- 6.8
經濟成長率(%) (OECD國家)	6.1	0.9	- 0.4	4.9	3.7	3.8	3.4	1.3	1.2	- 0.5

1) 推定值

〈資料〉 OECD

以上을 消費하는 先進諸國의 不況이 石油의 需要를 減退케 한 直接的 要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年代 初 以來 계속 上昇한 高油價는 에너지 輸入國들로 하여금 에너지 節約 및 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을 촉진시켜 石油需要萎縮의 間接的 效果를 誘發하였다. (表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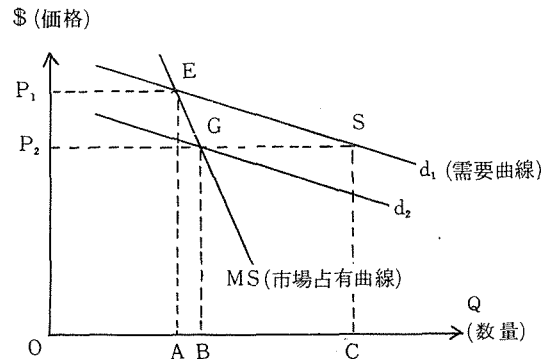
한편 이란·이라크 戰爭에도 不拘하고, 지난 1981年 初 以來 國際石油市場에는 하루 200萬~350萬 배럴에 達하는 供給과잉이 지속되었다. 더욱 1981年 下半期부터 國際的 高金利로 인해 石油在庫維持費用이 배럴당 年間 6~11 달러까지 上昇하게 되고, 石油의 供給과잉으로 價格安定化 展望이 높아짐에 따라 先進國들은 在庫를 줄이는 方向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1982年 1/4 分期부터 1日平均 470萬 배럴의 超過在庫분이 現物市場에 放出되었다. 또한 石油需要減少化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一部 OPEC 會員國의 生産量 下向調整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英國, 노르웨이 등 非OPEC 國家들의 生産量이 相對的으로 增加하여 OPEC의 市場占有率이 全世界 生産量에서 1975年에 51% 였던 것이 80년에는 43.4%, 81년에는 38.8%, 그리고 82년에는 34.7%로 떨어져서 OPEC의 供給量 統制機能이 弱화되었다. OPEC와 自由世界(共產圈除外) 石油生産量을 比較해 보면, 1979년까지 해도 OPEC는 하루 3,200萬 배럴을 生産하여 自由世界 原油生産量의 70%線을 차지했었으나, 1980年 以後의 需要減退로 현재는 하루 1,900萬 배럴 수준으로 격감하여 47%에 不過하다. 따라서 世界原油價格의 決定에 있어서 OPEC의 영향력은 그것만큼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油價下落的 또 다른 原因은 OPEC 會員國間의 內分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OPEC內의 油價戰爭의 불씨는 밖으로부터 당겨졌다. 즉, 今年 2月初 소련과 이집트가 그들 自國産 油價를 배럴당 1~1.50달러씩 引下한 것을 契機로 英國도 배럴당 5달러나 大幅引下시켜 原油市場에 價格引下의 불을 질렀다. 英國이 값을 내리자 北海産 原油와 品質이 거의 같은 高級油를 생산하는 나이지리아가 OPEC 會員國과 사전협의 없이 英國보다 더욱 큰 폭으로 배럴당 35달러 50

센트에서 30달러로 5달러 50센트나 價格을 引下시켰다. 이것이 OPEC 會員國內의 油價戰爭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OPEC는 1981年 11月 사우디 산 경질유 價格을 배럴당 34달러로 하고, 油質이 좋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産油國들의 油價는 배럴당 3.8 달러 이상 더 높게 調整했었다. 그러나 世界經濟의 沈滯로 石油需要가 줄어들자 나이지리아 등 一部 OPEC 産油國은 販賣量을 늘리기 위해 公示價格을 의면한 채 價格差를 배럴당 1.5달러까지 좁히고, 사실상 덤핑을 하여 왔다. 결국 一部 會員國의 價格引下가 다른 會員國의 競爭的인 油價引下를 촉발하게 되는, 카르텔의 不安定性을 立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多數의 販賣者로 構成되어 있는 市場에서, 그 中 어느 한 販賣者의 價格決定은 곧 나머지 모두에게 擴散되어 결국 個別 販賣者에게 돌아가게 되는 價格引下의 效果는 작아질 수 밖에 없는데 그 例를 잠깐(그림-1)을 통해서 理論的으로 考察해 보자.

(그림-1) 價格戰爭의 效果



어느 特定 販賣者가 다른 同業者의 價格이 P_1 에서 固定되어 있다고 보고 自己만이 販賣量을 늘려 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해 價格을 P_1 에서 P_2 로 引下시켰다고 보자. 이 때 다른 同業者들이 그와 같이 價格을 引下시키지 않고, 계속 P_1 價格으로 販賣를 한다면, 價格을 引下시킨 그 특정 판매자의 판매수량은 OA 로부터 OC 로 늘어나고 그의 總收入은 OP_1EA 로부터 OP_2SC 로 增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同業者들도 그를 따라서 價格을 다 같이 引下시킬 경우에는

그 特定供給者의 販賣量은 단지 OA로부터 OB 만큼만 增加할 것이다. 이 때 그가 또 價格을 P, 以下로 引下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의 行동을 따르지 않는다고 假定하게 되면 그의 需要曲線은 d_2 가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價格을 따라서 引下시키면 그의 販賣量은 市場占有曲線 (MS)에 따라 決定되어 價格引下가 數量增加나 收入增加에 미치는 效果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理論은 결국 一部 OPEC會員國의 價格引下는 다른 會員國의 競爭의인 價格引下를 촉발시켜 모두에게 利益이 되지 못하며, 供給過剩期에는 서로 團結하며 價格을 방어하는 것이 最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會員國 各國의 특수한 經濟事情과 非OPEC 會員國들의 供給增加등 여러要因으로 인하여 OPEC 體制가 產油量割當과 價格協定에서 危機를 맞이하고 있다는 實情이다.

앞으로 油價는 어느 線까지 下落한 것인가? 現在로서는 OPEC가 內부분열을 얼마나 신속히 조절하느냐에도 달려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배럴당 25달러 수준이 適正油價의 最低線이라고 본다. 그 理由는 現在 世界原油의 限界生産費가 平均 25달러 수준이고, 특히 OPEC가 1973年 1次石油과동 때 배럴당 2달러 25센트에서 11달러 65센트로 引上시키긴 했었지만, 사실 그 당시 適正油價는 배럴당 7달러線이었으며, 그동안 世界經濟 및 에너지 消費構造의 變化,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油價에 따라 배럴당 25~29달러가 最適價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OPEC의 意見對立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강경과와 온건파가 분열되어 價格競爭을 계속하게 되면, 油價는 배럴당 20달러 또는 그 以下로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世界經濟의 回復과 더불어 需要가 增加하면 原油價格은 다시 배럴당 25달러 수준 이상으로 上昇하게 될 것이다.

II. 原油價格變動과 世界經濟

原油價格의 變動은 世界經濟에 플러스 效果와 마이너스 效果라는 두가지 相反된 效果를 가져

온다. 우리는 油價의 上昇이 世界經濟에 直接·間接으로 매우 중요한 影響力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第1, 2次 石油波動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油價下落의 경우도 世界經濟에 油價上昇의 경우와 反對의 影響을 미칠 것이다.

먼저 石油輸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直接的인 影響으로 實質價格의 下落은 原油輸入代金の 輕減을 통한 國際收支의 改善과 對內的으로 物價 安定 및 實質所得의 增加를 가져 오게 된다. 특히 油價의 下落은 原油輸入의 絕對規模와 總貿易額에 대한 原油輸入比重이 높은 美國, 日本 뿐만 아니라 原油輸入依存도가 큰 非產油 開發國에 있어서도 輸入負擔의 減少로 國際收支를 改善시켜 줄 것이다. (表-3참조)

(表-3) 그룹別 經常收支推移와 展望

(單位: 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P)}	油價引下 영향	
					\$30/b	\$25/b
先進國	- 406	- 10	- 40	- 100	+ 150	+ 360
開發國						
石油輸出國	1, 143	650	10	30	- 225	- 540
非產油國	- 889	- 1, 033	- 900	- 700	+ 75	+ 180
石油輸入	(630)	(670)	(670)	(700)		

P) 推定值임.

(資料)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및 韓國開發研究院, 油價引下의 期待效果와 對應方向(1983. 2)

뿐만 아니라 油價의 下落은 대부분의 石油輸入消費國의 인플레이션率 減少, 實質所得增大에 의한 實質購買力의 增加, 投資增大등을 통해 景氣回復의 促進 및 輸入需要의 增大를 誘發하며, 이는 後進國의 對先進國 輸出이 增大하는 效果를 發生케 할 것이다.

反面 油價의 下落은 原油輸出國의 石油收入을 減少시켜 이것이 石油輸出國들의 開發計劃의 縮小調整 내지 遲延을 招來하며, 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其他 開發途上國들의 對產油國 商品, 建設 및 用役輸出의 鈍化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뿐만 아니라 石油輸出國들의 石油輸出收入減少로 인해 오일머니의 供給量이 줄고,

더우기 멕시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등의 外債償還能力이 惡化되어 國際金融市場을 不安하게 할 所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油價下落의 또 다른 否定的인 要素는 石油消費國들의 代替에너지開發 및 石油消費節約努力이 이완될 可能性이 있으므로 앞으로 需要增加등으로 油價가 再폭등할 경우 世界는 새로운 石油波動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특히 油價下落추세와 더불어 石油의 주요 代替燃料인 世界石炭産業의 展望이 대단히 밝지 못한 點도 짚고 넘어가야 할 問題이다.

한편 油價下落은 인플레이 鎮靜을 통해 國際金利를 다소 下落시킬 것으로 展望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國際金融市場의 需給構造變化 및 不確實性 增大, 消費者 및 企業의 資金需要 增大, 一部 產油國들의 對外借入 擴大 등으로 短期的으로는 金利上昇현상이 생길 지도 모른다.

換率에 있어서는 產油國의 國際收支惡化에 따라 產油國의 通貨는 弱勢가 되는 反面, 原油輸入依存이 상대적으로 큰 日本, 西獨 및 美國의 달러는 強勢를 띠 것으로 보인다.

以上에서 대략 살펴 본 바와 같이, 油價下落이 世界經濟에 미칠 과급효과는 肯定的인 側面과 否定的인 측면이 다같이 있지만, 지난 70年代 油價引上때 否定的인 側面이 肯定的인 側面보다 컸던 事實을 逆으로 해석하면, 下落時에는 得이 失보다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得失의 정도는 油價의 下落幅과 進行速度, 그리고 各國의 經濟事情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逆「오일쇼크」와 韓國經濟

油價下落이 世界經濟에 미치게 될 否定的인 要素를 강조하여 「逆오일쇼크」라고 표현하는데, 그 內容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石油輸出國들의 石油輸出收入의 減少로 인해 오일 달러의 供給量이 크게 줄어들어 國際金融危機를 초래하고, (2) 開發途上國들의 對產油國 商品 및 建設輸出이 減少 또는 지연되고, (3) 世界의 代替에너지 開發 및 石油消費節約 努力이 後退하

며, 石油代替燃料인 石炭産業의 위축을 초래하는 점 등이다.

이를 項目別로 검토하면서 韓國經濟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原油價의 下落은 國際金融市場의 借入條件을 惡化시킬 可能性이 높다. 지난해 8月の 멕시코 外債償還危機 이후 국제상업은행들이 開途國에 대한 貸出을 줄이거나 기피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서 開途國의 對外借入與件은 계속 惡化추세에 있다. 더우기 멕시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등 石油輸出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나라들의 外換危機는 油價引下 展望과 더불어 國際金融市場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1982年 末 現在 開發途上國家의 外債殘額은 OPEC 統計에 따르면, 6,260億 달러 그리고 IMF統計로는 5,990億 달러에 이르고 있다. (表-6 참조) 이같은 開發途上國의 外債累增은 주로 石油價格上昇과 高金利로 인한 正常收支赤字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石油달러로부터 借入하여 이 赤字를 메꿀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資金供給者의 역할을 해 온 OPEC 國家들이 世界石油消費 감소 및 油價下落에 따른 石油輸出收入의 감소로 이미 經常收支赤字國으로 전락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巨額의 資金을 借入하거나 引出하게 됨으로써 開途國의 借入與件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惡材의 영향은 우리 經濟에도 压迫要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今年 2月初 外換銀行이 世界主要 8個銀行으로부터 導入키로 한 신디케이트 借款의 導入條件이 종전보다 不利해진 것이다. 外換銀行은 國際金融市場에서 런던(銀行間金利(LIBO)에 0.625%를 加算해 주고 1982年에는 0.5% 加算) 5億달러의 借款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外資導入條件의 惡化는, 開途國

〈表-4〉 開發國의 外債償還불이행금액

(單位: 100萬달러)

年度別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¹⁾
國家數	2	3	2	4	6	14	22
金額	480	382	2,312	4,920	4,459	10,786	27,913

註1) 82年 金額은 멕시코, 브라질 除外

(資料) BIS, International Banking Developments, Jan. 19, 1983 & OECD Report (1982)

의 借入需要는 계속 增大하고 있는데 反하여 外債危機 때문에 國際商業銀行들이 新規貸出을 억제하고 있어서 世界經濟가 회복되고 開途國들의 輸出所得이 크게 증대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5) 4個國 年度別外債現況
(單位: 億달러)

	1978	80	81	82
브 라 질	520	650	780	870
멕 시 코	370	530	710	850
아 르헨티나	130	280	320	380
韓 國	160	250	330	360

(資料) OECD, 1982. 12.

(表-6) 非産油開途國의 對外債務
(單位: 億달러)

	1978	80	82	83展望 ¹⁾
對外債務總額	3,405	4,648	5,990	6,479
長期債務	2,910	3,871	5,064	5,639
(公共貸出)	(1,173)	(1,525)	(1,949)	(2,189)
(民間貸出)	(1,736)	(2,346)	(3,115)	(3,451)
外債/GDP(%)	28.9	27.1	33.9	33.9
外債/輸出(%)	131.5	111.2	138.4	137.5
元利金償還	506	769	1,084	1,105
(利子)	(195)	(406)	(583)	(548)
(元金)	(311)	(363)	(501)	(558)
元利金償還負擔率(%)	19.1	17.8	23.8	22.3

註1) 油價引下 展望이 反映되지 않은 予測值임

(資料)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表-7) 우리 나라 外資所要와 調達
(經常價格: 百萬달러)

	1980	1986	1982-1986	
			金額	構成比
外資所要				
經常赤子	5,321	3,600	20,800	44.7
元金償還	1,568	4,150	15,900	34.2
延拂輸出(純)	243	1,750	5,810	12.5
外換保有額增	863	1,200	4,000	8.6
合計	7,995	10,700	46,510	100.0
外資調達				
借 款 ¹⁾	3,432	7,800	33,315	71.6
外貨債券	46	500	1,670	3.7
其 他	4,517	2,400	11,515	24.7
元利金償還負擔率(%)	13.2	11.1	-	-

1) 뱅크론包含

(資料)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1982-1986)

한편 우리 나라는 第5次 5個年計劃 期間中 經常收支赤字 208億달러, 外債元金償還分 159億달러, 延拂輸出 및 外換保有高增加分 98億달러를 합쳐 總外資所要는 465億달러에 이를 展望인데, 이 所要外資는 公共·商業 및 銀行借款形態로 333달러를 導入하고, 나머지는 外貨債券 및 短期資金으로 調達할 計劃이다. (表-7참조) 對外債務額은 1986년에는 500~600億달러에 이를 展望이다. 따라서 油價引下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資金梗塞에 對備하여 外資調達의 質의 改善을 꾀하고 그 效率을 높일 必要는 크다고 보겠다. 또 國內貯蓄率을 높여서 海外貯蓄에의 依存度를 점차 낮추어갈 수 있는 金融政策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輸出도 그 전망이 밝지 못하고, 海外건설마저 産油國의 支拂條件惡化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展望인데다가 借入條件까지 나빠지는 國際經濟환경을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油價下落的 가장 큰 否定的 效果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中東諸國에 대한 建設 및 商品輸出展望이 어두워진다는 點이다.

中東産油國들은 그들 經濟의 대부분을 石油의 輸出에 의존하고 있는 石油 모노컬처(mono-culture)의 經濟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의 總輸出에서 石油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사우디는 99.9%, 이란 94.4%, 이라크 99.2%, 쿠웨이트 89.8%, 리비아 99.9%, 아랍에미리트 93.8%로 대단히 높다. 대부분 이들 나라들은 石油輸出收入으로 食料品을 포함한 거의 모든 商品을 外國에서 輸入해 오고 있으며, 石油資源의 收入을 토대로 産業建設과 開發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産油國들은 70年代의 급격한 油價上昇에 힘입어 莫大한 石油收入을 올려왔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활발한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 오고 있다. 開發計劃은 社會間接資本의 補充에 役점을 두어 道路, 港灣, 住宅建設, 灌溉 등 建設工事に 치중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東 建設輸出과 建設關聯商品輸出이 꾸준히 成長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海外建設受注額은 1973년에 1.7億달러이었던 것이 지난 數年間 급격히 增加하여 1980년에는 83億달러, 81년에는 137億달러,

82년에는 134億달러로 약 79배나 늘어났다. 1982年末 現在 受注殘額은 235億달러에 이르고 있다.

總海外建設受注額中 中東이 차지하는 比率은 1979~81年 平均 93%를 上廻하였으나, 1982年 中東의 石油收入減少와 對東南亞受注의 높은 增加로 中東占有率은 85%로 下落하였다.

中東에 대한 建設輸出과 더불어 建設關聯商品을 中心으로 商品輸出도 꾸준히 增加하여 1980~81年에는 우리 나라의 總商品輸出中 中東市場 比重이 10~11%의 水準을 占하였으나, 1982년에는 8.8%로 下落하였다.

최근 들어 中東占有率이 下落하고 있는 가장 큰 原因은 世界景氣沈滯의 持續으로 인한 石油需要減少 및 油價下落, 및 非OPEC產油國의 石油生産增加로 인한 中東原油에 대한 需要의 相對的 減少등으로 中東의 石油收入이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原油價下落과 OPEC의 石油輸出收入 減少는 이들 產油國의 財政難을 深化시키게 되어 經濟開發計劃의 縮小가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世界景氣沈滯의 持續, 餘他 開發途上國들의 海外受注競爭의 激化등의 要因만으로도 1983年 우리 나라의 對外 總建設受注額은 약 100億달러로 줄어들 展望이며, 世界油價가 배럴당 25달러 水準으로 引下될 경우에는 受注額은 약 83億달러로 크게 后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韓國開發研究院(KDI)이 油價變動 시나리오에 따라 豫測한 海外建設新規受注 展望은 <表-9>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83年 海外建設輸出로 벌어들일 外貨入金額은 油價引下가 없을 경우, 약 25億 달러, 油價가 배럴당 25~30달러로 下落될 경우에는 21.0~23.2億달러가 될 것으로 推定되는데, 이것은 油價下落이 없을 경우 外貨入金額 / 總施工對象

額 比率이 1982年과 같은 7.5%, 油價가 下落할 경우에는 6.6~7.1%로 줄어들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油價가 下落할 경우, 對中東 商品輸出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中東商品輸出의 70~80%가 建設輸出과 關聯된 鐵鋼材, 시멘트등 建設資材이기 때문에 建設工事의 축소에 따라 減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83年의 對中東 商品輸出은 油價下落을 前提하지 않을 경우 1982年과 같은 19億달러 水準으로 전망되나, 油價가 배럴당 25~30달러 水準

<表-9> 海外建設 新規受注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30/b	\$25/b
合 計	83	137	134	100	90	83
中 東	78	127	114	80	70	63
(構成比, %)	(95)	(93)	(85)	(80)	(78)	(76)
主要 3 國	70	122	109	75	66	60
(사우디)	52	78	83	70	66	60
(이라크)	4	19	15	5	0	0
(리비아)	14	25	11			
東南亞等其他	6	10	20	20	20	20

<資料> 韓國開發研究院(1983. 2)

<表-10> 對中東 商品輸出

(通關基準, 億달러)

	1980	1981	1982	1983年 展望		
				\$34/b	\$30/b	\$25/b
總商品 輸出	175	210	216	240	242	244
對中東 輸出	18.2	22.5	19.0	19.0	17.8	16.0
(構成比, %)	(10.4)	(10.7)	(8.8)	(7.9)	(7.4)	(6.6)
主要 3 國 ¹⁾	11.5	17.4	13.1	13.5	12.6	11.5
(사우디아라비아)	9.5	11.4	11.2	12.2	11.7	10.9

註: 1)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資料> KDI(1983. 2)

<표-8> 建設輸出現況 및 中東의 比重

(單位: 百萬달러)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A. 總 受 注 額	174	260	815	2,501	3,516	8,145	6,351	8,259	13,681	13,400
B. 中 東 受 注 額	24	89	751	2,429	3,387	7,982	5,958	7,831	12,674	11,390
B/A(%)	13.8	34.2	92.1	97.1	96.3	98.0	93.8	94.8	92.6	85.0

으로 下落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약 16.0~17.8億 달러 水準으로 減少할 것으로 予想된다.

IV. 油價引下에 대한 우리의 對應

油價가 배럴당 平均 5달러 정도 下落될 경우 우리 經濟에 미치는 效果는 앞에서 본 否定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肯定的인 側面에서도 대단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올해 들어올 原油量을 약 17,800萬 배럴로 볼 때, 그 代錢이 85,000萬 달러가량 경감되고 油價引下로 인한 國內物價에의 安定效果나 世界景氣回復을 통한 交易量 增加에 따른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輸出 增大效果도 적지 않을 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나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첫째, 對中東商品 및 建設輸出의 減少는 原油값 下落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가장 큰 否定的인 影響이 될 것이다. 따라서 ① 우리는 商品이나 建設輸出을 위한 市場의 多邊化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海外建設輸出의 약 95%가 中東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중에서도 70%가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편중되어 있었던 점을 이번 기회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總建設輸出가운데 中東市場의 比重이 日本의 경우 39%, 프랑스는 28%에 불과한 實情이다.

② 市場의 多邊화와 함께 필요한 것은 建設工事的 附加價值를 높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技術開發 및 經營合理化의 努力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勞動集約的인 單純 土木·建築工事中에서 機械, 電氣, 通信등 技術集約的인 工事와 더불어 Plant engineering으로 轉換이 要求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都市建設, 造景등 建設工事以後의 維持, 管理에도 적극적으로 參與할 수

(表-11) 海外建設의 工種別比重

(%)

		1966~76	77~79	80~81
土	木	64.0	29.2	40.0
建	축	21.3	49.9	52.2
機械, 電氣, 通信등		14.7	20.9	7.8

〈資料〉建設部 및 KDI(1983. 2)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③ 建設受注의 增大를 위한 政府의 技術 및 人力開發支援과 金融 및 稅制支援도 선별적으로 補強되고 效率化되어야 한다.

④ 建設会社들은 過當競争을 自制하면서 海外建設情報, 建設原資材市場情報體制를 확립하여 建設輸出의 收益性 提高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原油價格下落이 가져 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條件惡化도 우리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현상이다. 그 理由는 우리 나라의 外資所要額은 莫大한데 反하여 오일달러의 減少와 一部國家들의 外債상환불능 사태로 빚어진 金融市場의 경색은 이미 우리 나라의 借款導入 与件에도 不利하게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앞 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今年初 外換銀行이 얻어온 借款條件의 惡化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國內貯蓄을 增大시켜 外資依存度を 줄이면서 導入된 借款의 效率性을 높이고, 한편 對外信認度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油價引下를 契機로 國內物價安定을 더욱 굳혀서 對外競争力 提高에 全力을 다 해야 할 것이다. 世界銀行(IBRD) 및 아시아開發銀行(ADB) 등으로 부터 들어올 公共借款의 條件을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例전대 事業의 工程에 따라 借款을 引出하는 方式을 지양하고 部門別 擔保借款으로 들어오는 方案을 協議를 통해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國際原油價格의 下落으로 國內 에너지 消費節約의 노력이 이완되거나 OPEC에의 石油依存度を 줄이는 努力이 퇴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現在의 油價下落추세는 長期的일 수 없고, 世界의 石油 消費가 增大함에 따라 3年 또는 5年後에 새로운 石油引上파동이 닥쳐올 可能性도 크기 때문이다. 第3의 油價波動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石油依存度の 減縮 및 에너지 消費節約努力의 持續, 代替에너지 開發, 그리고 에너지 熱效率을 提高시키는 데 계속적인 努力이 投入되어야 할 것이다. 持續的인 消費節約 努力을 誘導하기 위하여 油價引下分의 一部를 關稅賦課로 吸收하여 그 基金을 代替에너지 開發 및 其他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해

사용하는 方案도 강구하여 봄직하다.

아울러서 石油市場의 動向에 관한 신속한 情報體制를 바탕으로 原油導入體制의 改善을 期하면서 對產油國과의 긴밀한 經濟關係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結論적으로 原油價의 下落은 우리 經濟의 景氣回復, 輸出增加, 物價下落 등 全般的으로 풀

러스效果가 클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對中東建設 및 商品輸出의 減退, 國際金融市場의 경색으로 인한 借款條件의 惡化, 새로운 油價引上波動의 可能性 등 予想되는 모든 마이너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對策이 꾸준히 強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產油國動向 □

OPEC 런던總會, 油價引下 合意

- 基準原油價 29달러로 引下
- 產油量 1千7百50万배럴로

OPEC(石油輸出國機構)은 지난 3월 14일 22년만에 처음으로 基準油價를 현행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15% 인하하고, OPEC 전체 產油量 상한선을 하루 1천 7백 50만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르크 엔구에마 OPEC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외한 12개 회원국에 생산할당량이 결정됐다고 말하고, 전체 產油量을 1천 7백 50만배럴로 제한하는 것은 「1983년 잔여기간」 동안이라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했다.

이 성명은 사우디 아라비아는 國別 產油할당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스윙프로듀서(可變產油國)로서 OPEC에 대한 국제석유수요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 우선적으로 하루 5백만배럴 이하에서 產油量을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OPEC의 1일생산 쿼터 추이

(단위 : 만배럴)

	새쿼터	지난해 3월 쿼터	지난 2월 생산량	77년 생산량
사우디	連動制	715	410	910
이란	240	120	250	560
이라크	120	120	85	230
U A E	110	100	110	190
카타르	30	30	30	44
쿠웨이트	150	80	65	190
알제리	75	65	60	110
나이지리아	130	130	67	200
리비아	110	75	85	200
인도네시아	130	130	130	160
베네수엘라	167.5	150	170	220
가봉	25	15	13	22
에콰도르	20	20	20	18
計	1,750	1,750	1,500	3,050

